500대 화학기업의 부침을 보면서…

화학경제를 읽는 독자분들에게 우리나라 화학기업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물어본다면 아마도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3000개 아니 30000개, 아니야 한 10000개정도 되지않겠어. 모두 맞는 대답일런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화학기업이 몇이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무렴 화학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있다니 말이나 되느냐고 탓하시겠지만 그것은 현실이다.
경제기획원이나 산하의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아도 정확한 숫자는 나와있지 않다. 하기야 화학산업의 범위가 워낙 넓고, 화학과 관련이 없는 생산은 생각할 수도 없으니 명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아니하고 물어보는 것도 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이제 화학산업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여기에 속하는 기업이 몇이나 되는지에 관한 통계부터 체계화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야만 화학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화학산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기업이 규모화되고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일반국민들도 화학산업을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주가의 흐름에 따라, 어느 누가 대량으로 주식을 사모으냐에 따라, 또는 어느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고 영업실적이 어떠하게 돌아가고 있더라 하는 「유비통신」에 얽매어 주식을 사고파는 비경제적, 비논리적 투자에 임해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업의 영업실적이 어떻고, 사업추진방향이 어떠하며, 주력상품의 시장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근거에 따라 주식을 사고파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주식시장 풍토가 당장 변해서라기 보다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자유화되는 시점에서 그들의 합리적 투자결정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과거와 같은 주먹구구식 투자 결정은 실패를 예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은행들도 과거에는 정분과 정리에 따라 대출을 결정해왔지만 이제는 그기업의 경영실적과 사업성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과학적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기업경영의 장래를 예측, 대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부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학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의미에서 화학산업 및 화학기업의 경영에 대한 자료체계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화학경제를 통해 화학산업 종사자가 아닌 독자들에게 화학산업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화학산업 및 시장에 대한 흐름을 지수화해 게재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9월호에서는 국내 화학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 자본금, 매출액이익률 등을 종합분석해 500대 화학기업을 선정하고 매출액순위를 매겨 보았다. 물론 이 작업은 8월중순 출판한 「화학기업편람」작업의 연속선상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500대 화학기업을 선정하고 경영실적을 분석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의 화학기업들이 너무나도 현실안주의 자세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 유럽 ·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이 슬금슬금 다가오는데도 이를 모른 채 관망하는 데는 오금이 저려올 정도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한해사이에 매출액 순위가 수십자리씩 뒤로 밀리고, 순이익은 밀리는 정도에 끝나지않고 적자의 나락으로 떨어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것은 그기업의 경영상태나 사업전망이 일시적으로 양호한 것을 지속될 것으로 착각했거나,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책수립을 게을리한 결과일 것이다. 즉 무책임한 경영이 부른 화가 한해에 끝나지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수립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권장하고 싶다. 주먹구구식 경영은 오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과학적 경영전략 수립은 장기발전의 토대이고 2000년을 대비하는 자세이다.

<화학저널 1994/9/1>